

한 차원 높은 슈퍼 SUV...이탈리아 감성 품다



섬세한 디자인 변화와 기능 강화를 거쳐 마세라티 본연의 품격과 이탈리아 감성을 품고 돌아온 르반떼. 마세라티는 도로를 달릴 때, 차에서 내릴 때 누구나 한번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차다. 100년이 넘는 스포츠카 전통을 담아낸 기술력과 이탈리아 감성의 창조적 디자인, 뛰어난 주행 능력을 갖춘 고성능 럭셔리카다.

럭셔리 SUV 세그먼트 새 바람 '마세라티 르반떼'

- 감각적 쿠페형 디자인 갖춰 동급 최고 공기저항계수 자랑
- 15개 풀 LED 빔 장착 야간 주행시 위험요소 사전 감지
- 외장 크롬 인서트, 실내 고급 인테리어 우아함 전달

2016년 첫 출시 이후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마세라티 르반떼가 섬세한 디자인 변화와 기능 강화를 거쳐 마세라티 본연의 품격과 이탈리아 감성을 가득 품고 돌아왔다.

최첨단 전용 생산라인을 보유한 토리노의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르반떼는 감각적인 쿠페형 디자인을 갖추면서 5인승 탑승 가능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살렸다. 전면 그릴에 자동차 에어 셔터(Electric Air Shutter)를 적용해 기술적 정교함과 공기역학을 최적화한 디자인으

로 동급 최고 수준의 0.31 공기저항계수를 자랑한다.

르반떼는 '알피에리 컨셉트카'에서 영감을 받은 인상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덕분에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고양이를 닮은 헤드라이트와 아이코닉한 마세라티의 C필러, 프레임리스 도어는 쿠페 디자인의 측면 실루엣을 과시해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어댑티브 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르반떼의 특별한 스타일을 더해주는 디자인적 역할뿐 아니

라,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다. 15개의 풀 LED 빔을 장착해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20% 향상된 시인성으로 야간 주행 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LED 빔은 주행 속도를 기반으로 도심, 교외 및 고속도로 등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패턴을 적용, 우천이나 안개 발생 시 편리한 약전 후 모드와 주변 조건에 따라 상·하향등을 조절하는 오토 하이빔 모드로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럭셔리 감성을 강조하는 그란루소 트림은 외장에 새로운 크롬 인서트와 바디 컬러의 스포일러를 적용하고, 실내를 고급 소재의 인테리어로 마감해 우아함을 전달한다. 그란루소 트림은 전면부의 메탈 마감 스킵트 플레이트와 루프레일, 오른쪽 펜더에 부착된 그란루소 로고, 차량 색상과 동일한 사이드 스킵트,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19인치 Zefiro 알로이 휠 등이 특징이다.

기존 외장 컬러 외에 로소 포텐테(Rosso Potente)와 블루 노블레(Blu Nobile) 색상이 새롭게 추가됐다. 강렬한 레드 컬러인 로소 포텐테는 모터스포츠 역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컬러로 전설적인 레이싱 감성을 선사한다. 다크 블루 컬러인 블루 노블레는 마세라티의 전통과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아함과 파워를 강조한다.

르반떼의 내부는 손바느질로 마감한 가죽시트와 대시보드 사이드패널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품위를 자랑한다. 뒷좌석은 3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특징으로, 580ℓ의 트렁크는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하기에도 제격이다.

르반떼 그란루소 트림은 최고급 SUV에서 스포티한 매력을 찾는 운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카본 트림으로 마감된 스포티한 그란루소 인테리어는 12방향 전동 조절 가죽 시트 및 전동 조절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갖췄다.

여기에 르반떼는 최첨단 3리터 V6 엔진을 보유한다.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세라티만의 시그니처 배기음을 만들어 낸다.

V6 가솔린 엔진은 최신의 GDI와 트윈 터보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출력은 430hp(르반떼S 기준) 또는 350hp(기본 르반떼 기준)이다. 르반떼S는 제로백 5.2초, 최고속도 264km/h를 발휘하고, 350hp의 르반떼는 제로백 6초, 최고속도 251km/h를 자랑한다.

가솔린 엔진 시스템은 공기압 밸브로 통제돼 청각을 자극하는 시그니처 엔진음을 유지한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 가스가 최단 거리로 배출, 최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마세라티 고유의 깊은 엔진음을 들려준다. 튜닝 전문가, 피아니스트, 작곡가 등 전문가들이 함께 '작곡'하는 마세라티만의 엔진 사운드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르반떼 디젤 역시 전설적인 페라리 F1 엔진 디자인이었던 마세라티 파워트레인 책임자 파올로 마티넬리의 지휘하에 독점적으로 개발된 3리터 V6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최고 출력 275마력의 출력을 생성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0g/km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고 속도 230km/h에 도달하기 전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단 6.9초 만에 주파하는 강력한 주행 능력도 갖췄다.

새로운 마세라티 액티브 사운드 기술 덕분에 르반떼 디젤 모델에서도 마세라티 고유의 감성적인 배기음을 감상할 수 있다. 배기가스 흡입관 근처에 부착된 두 개의 액추에이터는 엔진의 가장 독특한 톤을 강조하며, 주행방식에 따라 사운드를 조절해준다. 상황에 따라 액추에이터가 작동돼 원하는 고유 사운드를 생성하는데 운전자는 스포츠 버튼을 눌러 보다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희소성·고성능 원하는 광주 소비자에 마세라티 선사”



마세라티 이주영 광주지점장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후광’ (後光)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어디서든 알아 볼 수 있는 차. 마세라티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세라티 광주지역 정식 딜러 워본모터스 이주영 광주지점장은 “희소 가치를 지닌 고성능 럭셔리 자동차를 찾는, 특별함을 원하는 광주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점장은 마세라티의 매력으로 이탈리아 감성의 디자인, 스포츠카의 강력한 성능과 엔진음, 세단의 안락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그는 “자동차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고

디자인·성능·안락함 동시 느껴 한뼘 한뼘 수제작 시트커버 자랑 유행보다 가치 더 우선시 부담없이 전시장 찾아와 주길

운을 땀다. 핸들을 잡았을 때의 그림감부 터 시트의 안정감과 가죽이 주는 느낌, 다른 차와 다르게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빠진 캐릭터라인(character line)의 디자인, 심장을 뛰게하는 엔진음 등을 예로 들었다.

마세라티의 DNA는 레이싱카다. 스포츠카에서 시작해 세단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남다른 ‘파워’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의 노래와 어울리는 ‘배기음’과 이탈리아 신사 복처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정성들여 제작하는 ‘시트커버’ 역시 자랑거리라고 이 지점장은 설명했다.

특히 마세라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신차 출시가 더딘 편이다. 2007년 처음 출시된 ‘그란투리스모’ 모델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며 이어져올 정도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출시된 ‘르반떼’가 가장 최신 모델이고 ‘기블리’와 ‘콰트로포르테’ 등 대부분이 출시 이후 5-6년 지났다.

국내 완성차를 비롯해 독일의 브랜드가 약 2년마다 부분변경, 4년 주기로 완전변경을 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이는 유행보다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마세라티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지점장은 “명품을 사자마자 신제품이 출시되면 그 희소성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세라티의 디자인과 성능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수입차 시장에 발을 들인 뒤 2015년 마세라티 광주전시장 오픈과 함께 합류한 이 지점장은 6년 연속 판매왕을 차

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점장을 맡아 광주전시장의 건조한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도 그의 이력이 뒷받침됐다.

이 지점장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찾는 지역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단순히 차를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마인드가 엮여있다.

그는 “홍보에 있어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골프대회와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매번 테마를 가지고 진행했다”며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연주회를 갖는 등 마세라티 고객의 관심사에 ‘맞춤형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지점장은 “마세라티 광주전시장 이 운전저수지 앞에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시장에 방문해 마세라티의 매력을 느껴보고 가시길 바란다”며 “국내 15대 한정 기블리 리베레 에디션 및 프로모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최혜배 기자 choi@kwangju.co.kr

